



“우승 확률 76%를 잡아라”

프로야구 KIA vs 두산, 내일 한국시리즈 1차전 진검승부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는 25일 오후 6시30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한국시리즈(4선승제) 1차전을 치른다. 단기간에서 1차전은 중요하다. 기선을 제압하면 팀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시 우승 확률은 75.8%(33차례 중 25회)에 달한다. KIA는 시즌 내내 1위를 탈탈 정도로 안정된 전력을 과시했다. 시즌 막판 두산에 1위 자리를 위협받기도 했지만 힘으로 추격을 따돌렸다. 지난 2009년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KIA는 8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석권을 노린다. KIA의 가장 큰 강점은 원투펀치 양현종(20승)과 평균자책점 3.44와 헥터 노에시(20승)과 평균자책점 3.48)의 존재다. 이들은 올해 나란히 20승 고지에 오르며 최고 투수 자리를 놓고 다했다. 단기간에서 강력한 선발투수의 존재는 시리즈 판도를 좌우한다. 양현종은 올해 두산전 2경기에 등판해 1승과 평균자책점 6.17을 기록했다. 헥터는 두산전 5경기에 나와 3승1패

평균자책점 4.06을 자랑한다. 타선은 최강이다. 올해 KIA는 0.302의 타타율을 기록했다. 1부터 9번까지 화끈한 타격을 자랑했다. 타격왕 김선빈(0.370)을 필두로 3할 타자만 7명이 된다. 나지완과 로저 버나디나(이상 27홈런)를 비롯해 20홈런 이상 때려낸 타자도 5명이다. 그러나 약점은 있다. 시즌 내내 지적돼온 불펜이다. KIA의 불펜 평균자책점은 5.71로 높다. 불펜진의 방화만 아니었다면 더욱 쉽게 1위를 차지했을 지도 모른다. 긍정적인 점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3주 간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다. 두산은 올해 KIA와의 상대전적에서는 8승7무패로 앞선다. KIA를 상대로 상대전적에서 앞선 팀은 두산밖에 없다. 두산은 플레이오프에서 특유의 막강한 타선을 앞세워 NC 다이노스를 꺾고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랐다. 분위기가 한껏 오른 두산은 한국시리즈 3연패에 도전한다.

두산 타자들은 플레이오프에서 괴력을 선보였다.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무려 50득점을 기록했다. 타타율은 0.355로 높았다. 오재일(5홈런)과 김재환(3홈런) 등 두산의 간판타자들은 무려 12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장타로 연결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내주고도 내리 3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더스틴 니퍼트, 장원준 등 두산이 자랑하는 선발진이 다소 주춤했지만 불펜진에서 한덕주가 눈부신 호투로 선발진의 부진을 메웠다. 1차전 선발이 유력한 니퍼트가 과연 과거의 위용을 찾을 수 있을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올해 니퍼트는 KIA전 4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1승3패 평균자책점 9.00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장원준은 4경기에서 4승 무패 평균자책점 2.84로 KIA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뉴시스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kt, 전체 1·2순위 지명권 가져

2017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1·2순위 지명권은 부산 kt에 돌아갔다. kt는 23일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구단 순위 추첨식에서 가장 높은 32%의 확률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졌다. 지난 시즌 조성민을 창원 LG로 보내고 김영환을 받아 오는 과정에서 함께 받은 LG의 1라운드 지명권 18% 확률까지 가져 가장 유력한 1순위 후보였다. kt의 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순위 추첨에서 LG의 불이 나오면서 지명권 양도양수에 따라 kt가 2순위 지명권도 행사하게 됐다.

허재 국가대표팀 감독의 차남 허훈(연세대 4년)과 조기 진출을 결정한 양홍석(중앙대 1년)이 유력한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이 없는 한 둘은 나란히 kt의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 3전 전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kt는 분위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3순위는 전주 KCC가 가졌다. 추첨에선 서울 삼성의 불이 나왔지만 역시 양도양수에 따라 KCC가 지명권을 갖게 됐다. 두 팀은 김태술(삼성) 이적 과정에서 1라운드 지명권을 협상 카드로 사

유했다. 삼성이 1라운드 지명권을 KCC에 넘긴 것. 서울 SK가 4순위를 가졌고 삼성으로부터 1라운드 지명권을 받은 KCC는 5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행운을 누렸다. 인천 전자랜드는 6순위, 원주 DB가 7순위에 자리했고,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가졌던 울산 모비스는 8순위에 뽑혔다. 9순위는 고양 오리온 10순위는 디펜딩 챔피언 안양 KCC인삼삼사가 가졌다. 신인 드래프트는 오는 3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뉴시스

손흥민, 리버풀 상대로 리그 1호골 터뜨려

1-0으로 앞선 전반 12분 정규리그 첫 골... 1개월 만에 골 가뭄서 탈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25·토트넘)이 리그에서 9경기 만에 미수없이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2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17~2018 EPL 9라운드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12분 첫 골을 기록했다. 정규리그 첫 골이자 시즌 2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14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었다. 약 1개월 만에 골 가뭄에서 탈출한 것.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까지 더해 리버풀에 4-1 완승을 거뒀다. 6승2무패(승점 20)로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은 3위다.



헤리 케인의 골로 기선을 제압한 토트넘은 전반 12분 손흥민의 추가골로 달아났다. /뉴시스

손흥민은 역습 기회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리버풀의 골네트를 갈랐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착한 골 결정력이 돋보였다. 손흥민은 케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역습을 전개하자 하프라인부터 빠른 참여로 리버풀의 수비를 따돌렸고 논스톱 슈팅으로 수비를 무너뜨렸다. 전반을 3-1로 앞선 토트넘은 후반 10분 케인의 추가골로 리버풀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손흥민은 후반 24분 무사 시소코와 교체됐다. 유럽 축구통계전문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93점을 줬다.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케인(9.39점)에 이어 팀 내 2번째로 높은 평점이다. /뉴시스

진안군청 역도팀 유동주 2관왕



진안군청 소속 유동주 선수(25)가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유동주 선수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접점을

펼친 끝에 인상 164kg와 용상 197kg의 기록을 거두어 합계 361kg으로, 합계성적 359kg인 정연학 선수를 2kg차이로 제치고 극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유동주는 최근 무릎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변수가 우려됐으나, 이를 악물고 시합에 임하는 투지를 보여줬으며,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의 전망도 한층 밝게 했다. 일찍이 고교시절부터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에서 두각을 보여준 한국 역도의 희망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동주는 어린 나이임에도 풍부한 대회 경험과 성숙된 기량으로 다른 선수들을 압도했다. 최병찬 코치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기본기를 끌어올린다면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항로 군수는 “전국체전 메달소식에 진안군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진안군 직장운동경기부인 역도분야의 지속적인 인재 육성과 선수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토르:라그나로크’ 흥행 예고... 25일 개봉 예매 1위

마블 스튜디오의 새 영화 ‘토르:라그나로크’(감독 타이카 와이티티)가 압도적인 예매 점유율을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토르:라그나로크’는 이날 오전 8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7만306명으로 예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예매 점유율은 58.0%로 예매 매출액은 6억3500만 원이다. 영화가 오는 25일 개봉 예정인 만큼 ‘토르:라그나로크’의 예매 관객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개봉일 박스오피스 1위도 사실상 예약한 상황이다. 이번 작품은 ‘토르:천둥의 신

(2011)(169만명) ‘토르:다크 월드’(2013)(308만명)로 이어지는 토르 시리즈 세 번째 영화다. 죽음의 여신 헤라가 토르의 고향 아스가르드를 침략하고 위기에 빠진 토르가 동료들을 모아 헤라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크리스 햄스워스가 전작에 이어 주인공 ‘토르’를 맡았고 ‘헐크’ 마크 러팔로와 ‘로키’ 톰 히들스턴이 합세했다. 최악의 악당 ‘헤라’는 할리우드 최고 연기파 배우 중 한 명인 케이트 블란쳇이 맡았고, 이드리스 엘바·앤서니 홉킨스·테사 톰슨 등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연출은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맡았다. /뉴시스

이준익 감독 아름다운예술인상 대상

이준익(58) 감독이 제7회 아름다운예술인상 대상상을 받았다. 23일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에 따르면, 이 감독이 대상, 배우 명계남이 연극예술인상, 유혜진이 영화예술인상,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아름다운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감독은 지난해 ‘동주’에 이어 올해 독립운동가 박열의 삶을 그린 영화 ‘박열’을 내내 평단과 관객의 고른 지지를 이끌어냈다. 지난 한 해 가장 뛰어난 활동 업적을 남긴 영화와 연극예술인을 비롯해 기부활동 등 선행으로 귀감이 되는 예술인을 선정 1억원의 상금과 상패를 준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